

7월 다섯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이제는 'K-통상'...정부, 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7/744153/>)



KB국민카드, 하반기 인도네시아 공식 출범 예정...자회사 3000억원 지급보증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60186>)



동남아에 스며드는 'K 키친'...K 푸드 이어 조리도구까지 현지서 인기
(<http://foodnews.news/news/article.html?no=126814>)



무역협회-LG상사, 인도네시아서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판 별인다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4652>)

이제는 'K-통상'..정부, 개발도상국과 신개념 FTA 추진

입력 : 2020.07.21. 11:00:09

개발협력과 시장개방 연계한 새로운 모델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민관합동 ?신보호무역대응반 설치

정부·재계·경제단체,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 논의



사진설명보호무역주의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개방과 개발 협력을 연계한 신개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다.

필수기업인들의 국경 간 이동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상시기구인 '기업인 이동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한 호텔에서 경제단체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상산업포럼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 이후 세계 통상질서 변화를 ▲ 탈세계화(Deglobalization) ▲ 디지털전환(Digitalization) ▲ 공급망 재편(Decoupling) 등 '3D'로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면서 보호무역은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중심 다자체제는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디지털 통상은 확대돼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리쇼어링(해외생산기지의 자국 복귀) 등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발표한 이른바 'K-통상전략'은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연대와 협력의 통상질서를 만들어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교역과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사진설명중국 향하는 기업인들

먼저 필수 기업인에게 입국 특례를 제도화하는 '신속통로'를 현재 중국에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필수 기업인의 해외 출국과 국내 입국 관련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지원해주는 '기업인 이동 종합지원센터'도 무역협회 내 설치하기로 했다. 8월에 발족할 이 센터는 산업부와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직원 등으로 구성되며 건강 상태 확인서 및 격리면제서 발급 지원, 전세기 운항 협조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중국·일본 3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다자차원에서 '팬데믹 프리 패스포트' 제도 도입도 논의할 예정이다.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필수기업인의 이동과 물류·통관을 원활히 하고 무역·투자제한 조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신개념 'K-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잠재적인 FTA 체결 국가는 개도국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협상 목표나 관심 분야 등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인데, 한국은 농산물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서 "기존의 시장 접근 방식을 넘어 경제파트너로 접근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즉 우리의 산업발전 경험을 전수하거나 산업인프라를 구축해주고, 이와 연계해 시장접근 개선과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인 '통상협력촉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싱가포르에 이어 아태 지역 중견국들과 디지털 파트너십 협정(DPA)을 체결하는 등

디지털 경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선 '디지털 통상 대응반'을 만들어 디지털 통상규범 관련한 규제 개선 등에 나선다.

아울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연내 타결, 필리핀·캄보디아 FTA 협상 진전 등 신남방·신북방 FTA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호주의 파고를 넘기 위해 민관합동 '신보호무역 대응반'을 만들고 통상 분석·대응 포털인 'KOTRAS'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신통상전략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삼성전자[005930] 진교영 사장, 기아자동차[000270] 송호성 사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주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장, 통상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가 기존의 무역 규제조치를 넘어 환경과 노동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민관이 협력과 소통해 우리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카드, 하반기 인도네시아 공식 출범 예정..자회사 3000억원 지급보증

이아현 기자 2020-07-21 15:59:43

[더밸류뉴스= 이아현 기자] KB국민카드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힘쓰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자회사 'PT. KB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KB FMF)'에 3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인수통합작업(PMI)를 거쳐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정식 출범해 현지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KB FMF에 3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지급보증계약은 5년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사인 FMF 지분 80%를 879억원에 인수했다. 국민카드가 지난해 11월 최초 인수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시한 금액 949억8300만원보다 70억원(7.4%) 소폭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현지 법인 영업에 영향을 미쳐 최종 인수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KB FMF와 지분 인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더밸류뉴스(국민카드 제공)]

인도네시아 여신전문금융사 FMF은 1994년 설립된 할부 금융사로 리스업과 자동차·오토바이 할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자카르타에 본점을 두고 전역에 지점 137개 등 총 248개의 영업망을 가지고 있다. FMF의 총자산은 3251억원, 자기자본 632억원, 임직원 9800여명 규모로 최근 5년간 평균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동철 국민카드 사장은 “글로벌은 동남아 지역 비즈라인(Biz-line) 확대로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며 해외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KB국민카드는 해외에서 라오스(KB코라오 리싱), 태국(J 핀테크), 캄보디아(KB대한특수은행)에 진출해 있다. 또한 FMF를 초대형 여신전문금융사로 키운다는 계획 아래 첫 현지 법인인 캄보디아보다 62%(1503억원) 많은 3927억원을 투자했다.

KB국민카드의 이번 지급보증은 KB금융그룹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전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KB국민카드는 본사 직원도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영업은 현지 사정을 고려해 올해 안에 진행할 계획이다.

동남아에 스며드는 'K 키친'..K 푸드 이어 조리도구까지 현지서 인기

이준 기자 2020.07.22 13:01:31

한국 조리도구 및 식품이 동남아에서 'K키친'으로 각광

신남방시장으로 주목 받고 있는 동남아에서 'K-키친(Kitchen)'이 각광받으며 국내 기업 제품이 선전하고 있다.

동남아는 외식 문화가 발달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식사를 하는 빈도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식품은 물론 중소기업의 조리도구까지 인기를 끌며 한국 문화가 동남아의 주방에 스며들고 있다.

글로벌 쇼핑 플랫폼 쿠팡(Qoo10)은 코로나19 여파로 주방 관련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한국의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밝혔다.



▲ 사진=한국 조리도구 및 식품이 동남아에서 'K키친'으로 각광받고 있다. Qoo10 싱가포르 프로모션 캡처

쿠팡싱가포르에서는 리빙아트, 네오플램, 센스맘 등 국내 중소기업의 주방용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정 제품군이 아닌 프라이팬, 식칼, 냉장고 보관 용기 등 품목도 다양하다.

쿠팡은 동남아에서 한국 조리도구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자 최근 관련 상품들로만 구성된 'K 키친' 기획전을 따로 열었다. 쿠팡싱가포르는 싱가포르를 물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등 아세안 및 주변국가 소비자들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동남아 허브 사이트다.

국내 주방용품이 좋은 반응을 얻는 데에는 동남아 소비자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높은 신뢰가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위생이나 안전에 관련된 제품은 저가의 중국산 보다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한국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K키친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산 식자재와 간편식도 'K키친' 문화 전파의 선봉장으로 활약하고 있다.

큐텐싱가포르의 'Korean Food' 카테고리에는 6600여 건의 제품이 판매 중이다. 무안 햇양파, 고구마, 고추가루, 어묵, 자반고등어는 물론 감자부추전, 묵은지해물전 등이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인기 식재료다. 싱가포르에 한국식 배송 문화를 전파한 물류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통해 3시간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더욱 편리하게 한국 식품을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큐텐을 통해 싱가포르에 온라인 판매를 본격 시작한 CJ제일제당, 농심 등의 간편식에 대한 현지 반응이 뜨겁다. 올해 들어서만 '비비고 국물요리'에는 1400여건, '햇반컵반'에는 700여건의 후기가 달렸다. 동남아 소비자들이 한국 음식에 익숙해지면서 그 수요 역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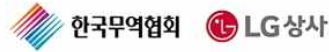
큐텐은 기획전 구성 및 타임세일, 배너 프로모션 등으로 K키친 관련 제품들의 노출을 극대화하며 동남아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큐텐 관계자는 "주방용품, 식품 카테고리에서 한국 상품들이 큰 존재감을 나타내면서 동남아 가정에 한국 식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뀌는 식문화는 K키친 아이템의 세계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무역협회-LG상사, 인도네시아서 '스타트업 테스트베드' 판 벌인다

박세연 기자 등록 2020.07.28 09:21:41

인도네시아 대·중견기업 다수 참여...2개월 간 혁신 기술 및 솔루션 실증 지원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인도네시아



한국무역협회와 LG상사는
인도네시아 대/중견기업들과 협력(Pre-PoC 테스트베드 방식)을 통한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LG상사(대표 윤춘성)가 인도네시아를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스케일업 무대로 삼고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개시한다.

양사는 지난 6월 종합상사 연계형 스타트업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2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번 사업은 한국 스타트업이 자사의 혁신 기술과 솔루션을 해외에서 시험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LG상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모집한 현지 금융·부동산·에너지 분야 대·중견기업이 다수 참여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 매칭, 소비자 반응정보 수집 등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양사는 앞으로도 협회의 7000여개 스타트업 데이터베이스 및 해외진출 지원 노하우와 LG상사의 해외 네트워크를 결합해 해외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간 새로운 협력 모델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활동 기간 및 내용

1 참여기업

금융·부동산·에너지 분야 인도네시아 대/중견기업군 다수

*대/중견기업군: 매출 "1천억 ~ 15조"원으로 분포

2 모집대상

- 금융인프라에 접목될 핀테크 관련
-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미디어 콘텐츠
- 프롭테크
- 온/오프라인 리테일테크
- 에듀테크
- 원격의료, 의료기기 등 헬스케어 관련
- 교통 관련(교통 정보 빅데이터, 택시 호출 서비스 등)
- 뷰티 관련 디바이스/하드웨어

3 선정혜택

- 혁신기술/솔루션을 대기업의 밸류 체인에 접목 예정
- 제 3의 투자자(AC/VC) 및 바이어 매칭 지원
- 레퍼런스 확보를 통한 후속 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
- 실증 테스트를 통한 소비자 반응 정보 수집

테스트베드 진행 프로세스

※ 코로나로 인한 현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동헌 LG상사 솔루션2사업담당 상무는 "LG상사는 뉴노멀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상사의 새로운 협업·사업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우수한 자산과 역량이 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무역협회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은 "테스트베드 사업은 실제로 기술과 솔루션을 시험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모두에게 윈-윈"이라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만큼 우수한 우리 스타트업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